

2004/10/5(화) 국 정 감 사

의원회관 315호실 | 전화 02)788-2427 | 전송 02)788-3315

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강재섭의원 질의자료

기 상 청

○ 기상재해경감을 위한 기상청의 업무 역량 강화

- 기상청장의 차관급 격상
-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
- 기상기술개발 사업 확대

○ 남북기상협력 관련

kang4you@assembly.go.kr

www.kang4you.com

기상재해경감을 위한 기상청의 업무 역량 강화

| 기상청장의 차관급 격상 |

- 지구온난화, 엘니뇨현상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재해의 피해규모가 매년 급증하여 지난 3년간('01~'03) 피해(약 10조원)가 90년대 전체 피해규모의 2배에 달함
- 하지만 자연재해 관련 업무가 가 담당부처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각 부처별로 비표준화 된 기상관측자료가 중복 생산되거나 신뢰성의 결여로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되지 못하는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상청은 기상재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전예방기관으로서 국가적 기상재해경감을 위한 협의 및 정책의 입안·결정 등에 중심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나
 - 현재 기상청장이 1급인 관계로 차관급 이상의 타 재해관련 기관과의 협의시 대등한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기상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일은 한시바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 본 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기상청장의 차관급 격상을 위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상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람
 - 그리고 기상청장의 차관급 격상시 업무 효과 향상과 기상재해 경감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대구기상대의 지방기상청 승격 |

- 경상남북도의 면적은 32,348km²로 우리나라 전체의 32.4%를 차지하는 가장 넓은 지역으로 다양한 지형지세를 갖추고 있음
 -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위치하여 1,000~1,900m의 험한 산악과 내륙 지방은 낙동강과 발달된 분지가 자리하고 있음
 - 또한 동해와 남해와 인접하여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약 28%인 1,286만명으로, 도 단위의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임
- 산업환경은 자동차, 제철, 석유화학,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과 전자, 섬유, 수산물가공업 등이 발달되어 우리나라 산업 총생산액 1위인 1,325조원으로 전체 27.6%를 차지함
- 최근 5년간(99~03) 기상재해 피해액은 5.8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타 도에 비해 1.5~4배 정도가 많음

[우리나라 도별 면적, 인구, 총생산 및 기상재해(괄호값은 전국 대비값(%), 서울 통계값은 제외함)]

구 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면 적 (km ²)	32,348 (32)	20,589 (21)	16,569 (17)	11,114 (11)	16,612 (17)	1,847 (2)
인 구 (천명)	12,861 (36)	5,239 (14)	4,680 (13)	11,459 (31)	1,487 (4)	513 (1)
산업총생산 (조원)	1,325 (36)	494 (13)	495 (14)	1,230 (33)	114 (3)	43 (1)
최근5년 기상재해 (조원)	5.8	1.4	1	1	4.1	0.2
최근5년간 인명피해 (명)	609	136	45	140	252	51

*통계자료 출처 : 통계청(2000년)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2004년)

- 전체적인 기후분류는 온대다우에 속하나, 경상남북도는 약 2도의 폭넓은 위도대에 위치하여 타 도에 비해 남북으로 기후차이가 심하고 기후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이 경상남북도 지역은 타 도에 비해 폭넓은 위도대에 위치하고 지형지세가 다양하여,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의 기후 및 일기 변화패턴이 상이하므로 효율적인 지역별 기상지원 대책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 거주인구, 우리나라의 도별 차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차별화된 기상정보의 생산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하지만 현재 경상남북도의 기상지원을 하고 있는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 부산지방청에서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의 기상업무 수행 및 기상대 9소, 관측소 14소의 소속기관을 관할하고 있어 관할지역이 넓은 관계로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및 기상업무를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리고 1인당 기상지원 관할면적과 인구가 타 도에 비해 높아, 부산지방청이 경상남북도의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역겨운 실정으로 기상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장애원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도별 기상인력 1인당 예보지원 역량]

구 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관할면적(km ²)	183	149	176	198	133	32
관할인구(천명)	73	38	50	204	12	9

○ 따라서 현재 부산지방청이 관할하는 경상남북도 기상지원 업무를 이원화하여 경상남도는 부산지방기상청이, 경상북도는 대구지방기상청을 신설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이 바람직함

▶ 본 위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대구지방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음

- 기상청에서는 대구지방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기상기술개발 사업 확대 |

- 그리고 효과적인 기상재해경감을 위해서는 기상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1990년대 기상재해 손실규모는 17조 6천억원으로 70년대의 4배로 증가하였고, 최근 2년간 태풍 ‘루사’ 및 ‘매미’의 피해는 10조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임
 - 그리고 최근 3년('99~'01)간 국내 연평균 기상재해 피해복구액은 약 1조 8천억원임
- 이처럼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기상기술은 단순히 자연재해 예방이라기보다는 국가안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월드워치연구소의 보고서(Unnatural Disasters)는 재해 경감에 1달러 투자하면 복구비용 7달러를 절약한다고 밝히며, 이런 재해 방지에 사용하는 비용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상기술의 확보 여부가 관건임
- 기상기술은 공공복지기술로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주도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상기술개발투자 비용은 2001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1/69, 일본의 1/37로 선진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임
 - 01년 : 67억원, 02년 : 78억원, 03년 : 99억원

- 선진국 수준의 기상기술 확보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연구분야의 투자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함
 - 전체 R&D예산 대비 기상관련 R&D예산의 비율이 미국이 0.77%인데 반해 우리는 0.27%에 그치고 있는 바, 향후 0.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기상재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 국가방재기상업무체계, 기상청의 기구 및 인력, 장비, 예산 등 기상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음

남북기상협력 관련

- 국가기상업무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전세계의 모든 나라와 기상자료교환이 필수적인 분야임
 - 물론 지금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료를 교환하여 각국이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북한과의 기상자료 교환은 다른 세계기상기구 회원국 정도의 기상자료를 교환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봄

- 기상분야는 남북의 정치적인 개입이 적은 비정치분야로서 남북기상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에 발생하는 악기상으로 인하여 기상재해 경감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 집중호우, 태풍 등 악기상 발생시 남북이 직접 기상자료를 교환하고, 임진강 유역의 기상관측망을 확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상분야는 비정치 분야로서 남과 북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남북기상협력이 부진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큼

- ▶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나라가 많은 기상재해를 입었고, 또 북한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북한과의 기상자료의 교류가 각각 24건, 22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그리고 지금 북한의 기상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인지
 - 지금까지 남북한 기상협력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현재 정부에서 임진강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서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재해의 예방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있어서도 호우 뒤의 홍수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 사전에 호우를 예측하여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호우 사전예보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그러기 위해서는 기상청이 이 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 위와 관련하여 현재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서의 기상청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